



○완주 화암사 가는 길

'내'가 '너'로 건너면 해탈세상

감성으로 보는 권

<1>차안과 피안의 가교-다리

나는 산사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산이 좋아서 '등산'을 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산을 싫어한다는 논리는 아니고, 산 그 자체 보다는 산에는 스스로 살고 있는 풀과 나무, 그리고 계곡이 있기 때문에 그 자연이 나는 좋은 것이다. 그 속에 내 마음을, '건너게' 해주는 절이 있기 때문에 더욱 좋은 것이다. 절이 있는 산 속을 걸어 가다보면, 신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그리고 나무들이 우수수 내는 소리가 너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는데, 나는 세상의 시름을 한뼘이라도 풀어 놓는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는다. "너희들은 이 숲 속에 살면서 시름이 없나?" 왜 없을까? 시름없는 중생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나는 놀란다. 나는 왜 저들과 말을 나눌 수 없을까? 저들은 지금 저희들끼리 뭐라고 대화를 나누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왜 나는 저들의 말에 한 문장도 끼어 들 수 없는 걸까? 그것은 아마 인간이 자연의 언어를 잃어버린 탓이 아닐까? 성경 언, 하늘까지 뻗어 올라가던 인간의 '바벨탑'을 허락한 후, 인간이 허물어지고, 인간의 언어를 갈라놓았다고 한다. 어디 인간의 언어 만일까? 자연의 언어를 동양 잃어버린 것 아닌가? 자연의 언어는 배울 수도 없는 언어인 것을.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엄청난 착각을 함으로써 자연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고, 문명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자연을 모두 파괴해 버림으로써, 오히려 자연으로부터 경원되고 소외되어 우주의 고아가 되 버리고 만게 아닌가? 산새들과 숲의 저 아름다운 대화는 인간을 소외시키고 비웃는 웃음소리가 아닐까? 자연과 하나였을, 자연의 하나인 인간이 자연을 멸시하고 소홀히 한 자만 때문에 인간은 자연에 철저히 외면당하고 외롭이가 된 것을 나는 산 속의 숲에서 깨닫게 된다. 자연과 인간의 사이엔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긴 것이다.

나는 고집이 센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리고 너무 인정사정 보지 않고 남을 꼬집는다고 남들이 나를 '빙초산'이라고 부른다. '빙초산' - 가만히 생각해 보니, 마침 내가 호도 없어서 뭇물 할까 심사숙고중이었는데 이왕에 사람들이 빙초산이라고 하니깐 '빙' 자는 빼고 '초산'이라고 하

저 있었다. 나는 이쪽에 앉아서 저쪽에 있는 '너'를 나에게 '건너오라'고만 했지, 내가 저쪽으로 건너 갈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남이 나를 이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남을 이해하는 것, 내가 남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남이 나를 이해하겠는가? 요즘엔 못가지만 예전엔 시장엘 가끔 갔다. 시장은 삶의 원형이 담긴 그곳이었다. 그야말로 아상에 집착하여 아귀처럼 다투는 저 중생의 삶의 모습, 그게 '나' 아닌가? 도(道)가 따로 없구나.

사람과 사람, 아니 사람뿐 아니라 모든 자연과의 관계에서 가장 슬픈 사실은 '나'가 '너'로 건너지 못하는 실존의 한계다. '나'가 '너'로 건너

바로 저기 不二의 세계 차안서 머뭇거리손가

기만 한다면 그게 해탈이고 극락이 아닐까? 절에는 여기 저기 다리를 건넌다. 해탈교라 하기도 하고, 극락교라 하기도 하고, 피안교라 불이기도 한다. 다리 이름이 무엇이든, '나'에서 '너'로 건너는 마음이 아니라면, 다리는 건너나 마나. 세상에서 가장 건너기 어렵고 힘든 다리가, 내가 '너'에게로 건너는 다리임을 나는 절에 있는 다리를 건너면서 깨닫는다. 다리를 건너기만 하면 그것이 불이(不二)의 세계인데, 차안에서 머뭇거리고 건너지 못하는 이 중생의 미망을 어찌할까?

다리는 건너기만 해선 안된다. 뛰어넘어서는 것이다. 아무리 튼튼한 불법의 다리라 하더라도 부처님 등만 밟고 의지하여서 쉽게 건널 수는 없다. 차안에서 피안으로 건너뛰는 습기와 용기가 없이는 차안에 머물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인연하게 잘 만든 다리를 절에 만들어 놓고 수많은 신도들이 건너간다고 해서 다 불법을 건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미망으로 소외되고 갈라진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

자. '풀 초'자 '뫼 산'자. 그리고 보니 그럴 듯 해서 호를 아예 '초산'이라고 정해버렸다. 내가 고집이 센 것을 두고 어떤 사람은 내가 아상이 강하다고 한다. 아상, 그래, 내가 아상이 강한 건지는 몰라도 탐진치 삼독에 빠져 암처럼 뼈가 썩어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 세상을 그럭저럭 맥없이 살아가는 '물초산'이 되는 건 더 싫다. 내가 15년 동안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교육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는 결국 빙초산이 파김치가 된 것 밖에 소독이 없는 사회였다.

그러나 생각해 본다. 나는 지금까지 무거운 '나'를 업고 다녔다. 나는 세상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발버둥치고, 원망하고, 토라

현대불교 - 동국역경원 공동캠페인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감미롭게 읽는 부처님 육성

한글대장경의 세계 지혜와 자비의 말씀

뱀의 독이 몸에 퍼지는 것을 약으로 다스리듯, 치미는 화를 식이는 수행자는 이 세상(此世)도 저 세상(彼世)도 다 버린다. 마치 뱀이 독은 허물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연못에 핀 연꽃을 물 속에 들어가 꺾듯이 애욕을 말끔히 끊어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마치 뱀이 독은 허물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한글대장경의 간행일련번호 153번에 해당되는 경전은 <지혜와 자비의 말씀>과 <미린다왕문경>이다. 이들 경전은 고려대장경의 내용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팔리어 경전에서 번역해 한글대장경에 포함한 것이다. 여기서 살펴 볼 경전은 <지혜와 자비의 말씀>인데 이 경은 바로 슈타니파타(Suttanipatal)이다. 앞에 인용한 구절들은 바로 이 경전의 제1장 사품(品)의 처음 세 구절이다.

슈타니파타는 그 자체가 경전의 이름이 아니고 경의 집성을 의미한다. 불교의 많은 경전 중에 최초로 이루어진 경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 슈타니파타는 역사적으로 실재했던 부처님과 당시의 인물들 그리고 초기 불교의 정신을 아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한다.

부처님 입멸 이후 그 가르침이 간결한 운문으로 구성되어 전해진 것은 잘 알려진 사실. 아쇼카왕 BC268-232 이전에 성립된 경전 가운데서도 오래된 것이 슈타니파타인데 그 가운데서도 4장과 8장은 더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슈타니파타는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뱀의 장 즉, 사품(品)인데 12개의 경으로

묵여져 있다. 사품의 제 1경이 뱀의 장이다. 앞의 인용 구절들에서 보듯이 뱀이 독은 허물을 벗어내는 것처럼'이란 비유가 반복되어 이 같은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두 번째는 작은 장(小品)인데 비교적 짧은 내용의 경 14개로 이뤄졌다. 그 가운데 11번째 경이 부처님이 아들 라훌라를 위해 설한 내용. 즉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함께 있는 현자들을 가볍게 보거나 교만한 마음을 내어서는 안된다는 가르침이다.

세 번째 장은 큰 장 대품(大品). 약간 긴 12개의 경을 담고 있다. 그 가운데 제1경 '술가경'과 제2 '정근경' 제 11 '나아라카경'은 부처님 전기에 대한 가장 오래된 자료다. 제 9 '비야세타경'은 4성(四)의 평등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 주목된다. 부처님 당시의 4성 제도는 엄격한 것이었고 부처님의 4성 평등이라는 가르침은 당시 사회의 질서를 크게 뒤엎는 가르침이었던 것이다.

네 번째 장은 여덟권의 시(義品)다. 여덟 권의 계송으로 이뤄졌다. 슈타니파타 가운데 한역된 유일한 경집이 바로 네 번째 장이다. 서북인도의 재가 신자인 지겸(支謙)이 오나라 초기(서기 223 ~ 253년) 사이에 번역한 것이다. 경의 한역 이름은 <불설의축경(佛說義足經)>이다. 다섯 번째 장 피안에 이르는 길(彼世通品)은 앞의 경들과는 달리 전체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16명의 바라문(婆羅門)이 각기 부처님에게 질문하고 답한 문답록 1절과 서론과 결론을 합해 18절로 이뤄진 것이다. 어떤 경전보다 일찍 이루어지고 역사적 실존 인물들의 부처님과 당시 제자들의 육성을 가장 진하게 들을 수 있는 이 경전은 운문체와 반복적 비유 등의 특징으로 인해 새로운 맛을 준다.

최초경전 '슈타니파타' 옮겨 당시 인도사회 뒤흔든 사상



현대불교신문사와 동국역경원은 이 캠페인에 불자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캠페인 및 대장경 봉안 봉사, 역경 후원회 가입 등과 관련한 문의도 항상 받고 있다. 정경각보급 및 캠페인 관련 문의 (02)722-4162, 역경후원회문의 (02)2260-3883, 역경후원금 온라인 농협 078-02-079975 예금주 강계술(석주스님).

손조각품 雪山白玉佛



雪山玉佛
釋迦世尊께서成道
雪山玉石으로造成한因循
慈悲하시고透徹智慧가
具足하신 無上國寶聖像
이시다.
二五〇五年二月二十一日
小松三翁謹書

주진서



고불승림 방성 석공 큰스님

▶ 세계불교도우의회(W.F.B)한국본부
(주)코리아 붓다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 (02)864-8834~6 / FAX : (02)839-2185 인터넷 : www.korea buddha.co.kr